

Korean Anabaptist Journal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2018 겨울 통권 17호

- 발행처: 한국아나뱁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 www.wkaf.net ● 발행인: 남상욱 ● 편집장: 문선주
- 편집위원: 배용하 염혜정 한준호 ● 발행일: 2018. 12. 25 ● 창간일: 2012. 7. 12 ● 주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매죽현로 1176번길 8-54 ● 전화: 041-742-1424 ● e-mail: byh1424@gmail.com ●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신청해주세요.

편집인의 글

경계를 허물며 사는 지혜



염혜정 자매
캐나다 토론토

2018년은 유난히 한국을 달군 뜨거운 이슈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MeToo와 함께 사회 각층에서 깊어왔던 힘의 불균형에 의한 성적 부조리를 고발하며 터져 나온 여성들의 외침, 여러모로 극적으로 성사된 남북대화와 이어진 화해의 여성들,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지위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이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다른 문화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 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국의 오랜 정치, 사회, 문화적 담론의 지형을 흔들고, 기득권/다수자 중심의 사회에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또 듣는 사회로 나아가는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MeToo와 그에 따른 여성의 목소리는 가부장적 사회의 암묵적 합의 속에 여성의 침묵을 댓가로 유지해 온 사회 구조에 균열을 내고 그 균열 사이로 터져 나오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이야기들로 시끄럽고 활기 있는 사회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냉면을 히트시키며 우리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온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는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여 장기간 기득권을 유지해 온 특정 집단의 정

치 기반을 흔들며 불안이 아닌 구성원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성장을 위해 움직이는 사회로 나아갈 희망을 품게 해줍니다. 또한, 예멘에서 제주도로 온 예기치 못한 손님들은 한민족 중심의 사고와 삶의 패턴에 익숙한 우리에게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진지하고도 실제적인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호 아나뱁티스트 저널에서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참여하고자 제주도를 통해 우리 사회로 온 예멘인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예멘인들과 만나 교류했던 지체들의 경험, 예멘인들에 대한 오해를 넘어 이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정보, 30년이 넘게 미국에서 난민과 함께 한 주빌리 파트너 (Jubilee Partners)가 제안하는 난민을 돋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통해 ‘낯선 사람들’이라는 이름표와 함께 온 이들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고, 대신 우리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고자 하는 작은 몸짓을 담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있었던 MCSK (Mennonite Church South Korea) 총회에 메노나이트 내/외부에서 참석하신 분들의 소감과 메노나이트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 그룹인 청년들의 소감을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 소식들과 여러 글들이 실렸습니다. 앞으로도 아나뱁티스트 저널이 사회와 소통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다양한 아나뱁티스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비판 및 격려를 담은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호 저널은 아래 두 곳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www.wkaf.net / www.anabaptist.kr

예수마음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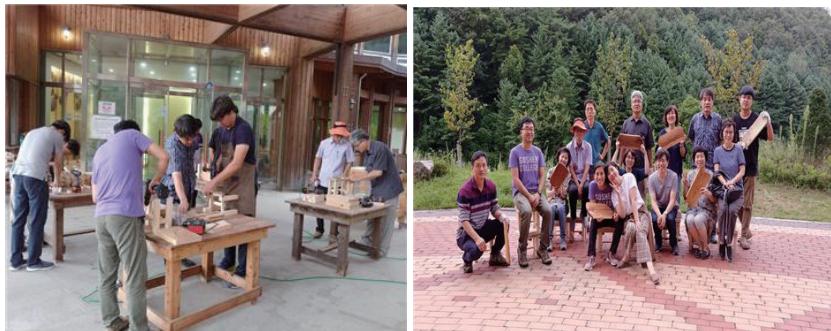
예수촌공동체 침례식

녹음이 짙고 하늘이 청명한 어느 여름 날 (2018. 6. 24) 예수촌 공동체(예수마음과 예수촌 교회)의 아름다운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두 교회가 함께하는 세례식이지만 2013년 예수촌교회에서 분가한 예수마음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침례식이었습니다. 귀하고 축복된 생명이 탄생한 날이었지요. 예수마음교회의 소중한 김유진 자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시작하게 된 세례준비과정에는 안동규(교회론), 김승천(성경말씀), 문선주(메노나이트의 역사), 박숙경(멘토-삶의 여정나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였고 교회 지체들 한분 한분이 이 과정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야말로 의미있고 가슴벅찬 교회의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김유진 자매

는 예수마음교회의 김성한 형제님과 허혜영자매님의 1남 3녀 중 2녀로서 현재 미국 인디애나에 있는 고센대학에서 올 9월부터 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하는 딸로서 영육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전교인수련회

2018년 9월 15–16일 화천 목재 문화 체험장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맘껏 누리기!”라는 주제로 예수마음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화천의 수려한 자연에 감탄하며 들어간 화천 목재 문화체험장은 속세를 벗어난 자유인을 위한 공간처럼 아늑하고 포근하고 자유했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들은 목재로 의자를 만들고 자매들은 주방에서 쓰는 빵도마를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작업은 서툴기는 하지만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후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후에 MBTI검사를 하면서 다 알고 있는 듯 한 서로의 성격이지만 또 다시 한번 서로의 다양성을 확인하면서 시원한 웃음을 터뜨리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공유할 내용이 더 많은 사람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건강한 바운더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예수촌 공동체에서 2018년 9월 29일 토요일에 김복기 형제를 강사로 한 ‘건강한 바운더리’ 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건강한 경계짓기’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 소에서 갈등이 발생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건강한 바운더리를 지킴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교회공동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관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예배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속에서 10월 7일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올까 걱정했는데 10월의 가장 멋진 날을 주셨습니다. 올해 받은 풍성한 은혜 나누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준비해 온 감사편지를 읽을 때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모두 전해져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었으며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예수촌 교회

(2018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바자회와 어르신 점심대접



예수촌 교회가 근화동으로 이사온 후 이 지역 주민들과 더 잘 소통하고 알 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행사 바자회와 삼계탕 점심 대접 행사를 치렀다. 바자회는 7월 7일 토요일에 시행되었는데 각자 가정에서 잘 쓰지 않는 물건 뿐 아니라 음료 및 간식등을 준비하여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했다. 어르신들은 마당에 진열된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쓸 만한 것을 고르고 건물안으로 들어와 시원한 과일 음료와 빈대떡 등을 드셨다. 주민 중에는 교회가 새로 입주했다고 입주 선물로 화장지를 가져오셨고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재정에 보

태라고 현금해주신 분도 계셨다. 주민들과 교우들이 서로가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다.

삼계탕 점심 대접은 8월 18일 토요일 점심 시간에 실시하였다. 약 30여분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삼계탕을 잘 드셨다. 처음에는 얼마나 오실까 혹 음식이 남지는 않을까 염려도 했지만 근화동 4반 반장님의 협조로 4반의 어르신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았다. 오셔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모습이 무척이나 보기 좋았고 준비한 우리들도 무척 흐뭇했다. 바자회도 삼계탕 행사도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침례식

6월 24일 화천 삼일리 계곡에서 침례식을 예수마음교회와 연합으로 거행하였다. 예수촌 교회에서 임한섭, 연은미, 이윤구, 예수 마음교회에서 김유진 이 네 명이 각자 신앙 여정을 간증하였고 또 네 명의 멘토가 나와 이들을 격려하고 함께했던 일들을 소개했다. 공동체적으로 침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사람씩 나와서 침례자들을 안아주면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주었



다. 초여름의 환한 햇살이 침례자들 젖은 머리 위에서 반짝였고 함께 부르는 축복송은 계곡의 물소리와 멋진 화음을 만들어 냈다.

가을 수련회

10월 12일~14일 인제 용대리 햇살마을 펜션에서 가을 수련회를 가졌다. 전체 행사는 금요일에서 일요일 까지 이지만 공식행사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되어 일요일 오후까지 진행되었다. 소통이라는 주제로 모인 수련회에서 예수촌의 지체들은 동그라미 모임과 여러 가지 몸풀기, 각종 게임,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한결음 더 가까워 진 것 같았다. 첫날에는 각자의 MBTI 성격유형을 조사해 보고 서로의 성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에는 인생 나무 그리기며 처음 예수촌의 인상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혹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격의 없이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다. 사이 사이 게임도 하고 몸풀기 놀이도 하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즐거워했고 숯불로 잘 구워진 돼지 고기와 닭갈비를 앞에 놓고 웃음꽃을 피웠다. 깊어가는 가을날 자작나무 숲길을 걷는 많은 추억과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수련회였다.



평화누림교회

2018 MCSK 총회 논산서 진행



10월 12일~14(일)까지 논산평화누림교회와 양촌휴양림에서 2018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마음, 공동체”라는 주제로 공동체에 대해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손님도 초청하여 전국에서 메노나이트에 관심있는 형제자매들께서 오셔서 교제하였습니다.

MCSK의 새 대표로 한준호 형제님이 섬기게 되었고 다음 총회는 진해에서 주관합니다.

메노나이트 다음세대 모임

메노나이트 유스 모임이 2박 3일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와서 잘 놀고 더 많이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야기하고 영화고 보고… 노는 것과 도서관을 둉굴며 스마트폰 보고 책보고 자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예멘난민과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어른들이 걱정이지 다음세대들은 걱정 불들어 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좋은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고학준형제 윤찬란 자매, 김미현자매 같은 울타리 살이 시작

11월부터 공동체에 새식구가 왔습니다. 고학준 윤찬란 자매 부부가 이사 오고 배꽃잎 자매의 친구인 김미현자매가 논산에 취직을 해서 한 울타리 식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겨울을 날 나무도 준비하고 집수리도 하면서 한 식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2차 인도 청소년 아웃리치 진행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의 청소년 난다니와 카란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논산에 머물면서 공동체 경험도 하고 한국 관광도 하고 이런저런 교제도 하면서 잘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인도의 정치적 상황은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청소년들이 그 이웃들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삼송동안교회



설립감사예배

삼송동안교회에서는 3/18(주일) 오후4시, ‘설립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빈들이 일부 참석하셨지만, 친정 교회인 일산동안교회에서 김해수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두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합니다.

청소년사역

청소년cafe <와락>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소개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송동안교회에서는 청소년카페 <와락>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카페에서, (신원중 기말고사 마지막 날) 큰

아이 학급이 영화를 관람 했고, 다른 학급은 보드 게임을 했습니다. 또한, 고양시 도서관센터와 연계, 화다방(독서컨설팅 회사)과 협약이 있었습니 다. 복음의 접촉점이 계 속 확대되길 소망합니다.



도서관협약



삼송동안교회에서는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 고양시 도서관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책 읽기 좋은 장소’로 선정) 10월 중순에 있을 제8회 고양시 도서관 책잔치 <인문학 강연> 중 하나를 삼송동안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삼송동안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에 (총회 교회력보다 앞당겨)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개인적-공동체적인 감사제목을 나무열매로 드리며 기뻤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톨스토이 농장 이야기—주님은 나의 목자 교회

‘나 여기 있어요!’

장마가 참 기네요. 가끔씩 하늘에
해가 있긴 있다는 걸 확인만 시켜주
네요. 요즘 뿌리가 참 바쁩니다. 연
일 빗물에 녹아내리는 공기중의 질
소를 부지런히 빨아먹고 이곳저곳
에 퍼 날라, 나무도 과일도 얼른 키
워야지요. 그런 반면 잎은 늘 놀고
먹지요. 햇볕이 없으니 광합성 작용
을 못하고 열매에 맛난 당분을 제공
할 수 없는 거지요. 장마철엔 과일이 굵지만 맛이 떨어지고, 가뭄엔 과일은
자질하지만 맛이 좋은 이유랍니다.

오늘 긴 장마를 끝내려는 듯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붉디 붉은^



'독수리가 나타났다!'

저희 논에서 마음껏 우렁을 잡아먹던 두루미들에게 비상입니다. 평화롭던 들녘에 저멀리 휴전선 일대 철원평야에서나 있을 법한 독수리가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두 마리씩이나. *^*

농촌 들녘에서 허수아비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더이상 지킴이 노릇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비가오나 바람이부나 요즘같은 땅볕에도 늘 한 자리 지키는 그 성실함과 우직함이 된 것같아 좀 씁쓸하지만, 생명 없는 허수아비의 한계를 새들이 알아차린 거지요. 곧 저 독수리의 한계도 알 아차리겠지요?!

'주렁주렁, 줄레줄레!'

오늘은 새벽부터 열매달린 가지들을 하나하나 들춰 가며 줄을 매달아 주었습니다. 혹, 비 바람이나 열매들 무게에 가지가 찢어지지 않고, 가지들 사이에 바람도 햇볕도 잘 통하여 고루 잘 익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열매는 주렁주렁, 줄은 이곳저곳 줄레줄레 달렸습니다. ^



한정판 판매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신 바람에 본게임(?)에 더 마음이 가네요. 농부가 밭을 헛하지 않지만, 하늘에는 순응할 수 밖에 없지요.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힘내소서!

나도야 수출역군! ^^

60,70년대에 걸쳐 초중고를 다니던 시절, 사회도덕 수업이나 훈화시간에 늘 어김없는 듣던 말이 있습니다. ‘1980년도 수출목표 100억불.’ 산업화시대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내건 슬로건인데, 어린 나이에 그 해가 되면 진짜 신세계가 펼쳐지는 줄 알았지요.



살다보면, 이전엔 나와 전혀 무관한 듯 보였던 일이 내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어제 착한복숭아 2 키로짜리 한 패렛트를 홍콩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벗님들에게서처럼 그곳에서도 귀하게 여겨졌으면 합니다.

새생명이 태어나고

한 해 농사가 끝났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농부 5년차가 희망에서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았고, 여름이 가까워 올 수록 뭔가 모를 두려움이 고개를 들더니, 그래도 감사함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 주신 벗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농장 뒷 정리를 하면 곧 농부 6년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더위에 암탉 두 마리가 한 동지에 알을 품더니,

어제 병아리 한 마리가 불쑥 고개 내밀었습니다. 참 기분이 좋네요. 저 병아리는 엄마가 둘이지요. 제가 세번째 엄마가 되겠습니다. ^^\n

‘나를 왜 못 찾아내는 거야?’

복숭아 수확이 마무리 되면, 일부러 따내지 않고 이곳저곳 눈에 띄게 제법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후 가까운 공동체학교 아이들이 와서 보물찾기 하듯, 술래잡기 하듯 하나씩 찾아내 다 따가지요. 그 옛날 이삭줍기 갔을 때 여기저기 흘려놓았던 그 인정넘치는(?) 주인에게 배운거지요.



오늘, 꼭꼭 숨어 있는 그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숨박꼭질 하다 너무 꼭 숨어버린 아이가 미워 그냥 내버려 두고 갔던 기억이 나더군요. ^ 그대로 숨은 아이 입장에서는 서운하지요. 무섭기도 하고!

‘나만 왜 개가 붙지요?’

좀 숲이 우거진 산에 가면 이런저런 야생 과일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을되면 열매도 익고 맛도 좋지요. 초등시절, 가을 소풍을 큰 절을 끼는 산으로 가곤했는데, 그곳엔 유난히 그런 ‘돌~’ 자가 붙는 과일들이 많았고, 스님들의 겨울양식이라며 선생님들이 따먹지 말라고 했지요.

농장 한켠에 개복숭아 한 그루가 가지 찢어지게 많을 열매



를 달고 익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뜻 이 나무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시 돈이 아닌 열매 자체의 그 향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홀가분 합니까?'

봄부터 여름까지,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 시기 내내 가지들을 지탱해 주는 도구가 둘 있습니다. 기둥처럼 세운 높은 지주대에 달린 줄로 나무 위에서 가지들을 묶어 주는게 하나고, 지지대로 나무 밑에서 가지들을 받쳐 주는게 하나이지요. 사진에서 구별되나요? 파일들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파일이 없어 한결 가벼워진 가지들 밑을 받쳐주던 지지대를 치웠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이제 마음껏 바람에 흔들리며 햇볕을 받으며 새로운 일(내년 파일)을 만들어 가겠지요.

'언뜻 눈에 보이는 것보다가 아닌...'

수확이 끝나고 한달 여, 나무와 땅 관리하느라 여전히 부산을 떨었습니다. 모든 나무 가지에 골고루 햇볕과 바람이 들도록 전정하고, 나무들이 열매키우느라 기진맥진한 틈을 타 기세좋게 나무 타고 올라가는 넝쿨성 잡초들을 제거하고, 흙의 영양상태를 확인하며 홍날을 위해 호밀씨를 뿌렸지요. 그러다,,, 연장을 내려



놓고 무릎꿇고 들여다봅니다. 신비로운 땅의 세계를!

농부 6년차, 다시 마음을 낮춥니다. 열매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새발에 피’ 일 뿐!

‘이게 진정한 흙집...’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이제 곧 농부들도 겨울대비 월동준비에 들어갈 것입니 다. 그런데 사실 농장에서 제 일 먼저 겨울준비를 하는 생 명체는 벌레들이지요. 가을의 ‘마지막 햇살’ 도, 그 좋다



는 단풍도 마다하고 내년을 위해 집을 짓고 들어갑니다.

주거문제는 항상 우리사회의 큰 화두인듯 합니다. 집값은 집값대로, 살고 싶은 집은 그것대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지요. 가을전정을 하다 정말 멋진 집 한채 발견했습니다. 입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안에 또 한겹의 집이 있네요. 놀랍습니다.

KAC소식

리본모임 소식

9월 18일은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 아래 남북의 정상이 세번째로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겸손한 90도 풀터 인사에 100억장의 홍보 전단지를 돌린 효과라는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주민들에게 겸손하며 친근한 남한의 지도자를 각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KAC에서는 남북 미래 나눔 재단의 윤환철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북한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였으며,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도민으로서 반드시 들어야 할 주제였습니다. 남북평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대적인 요청인 그 평화의 부름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첫발걸음을 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윤환철 사무총장님의 경험과 북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미처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북한을 대했던 방식에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북의 경색구도가 완화되면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시대를 다음 시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23일)로 길이 기억된 리본 모임 최초 시도 “시와 영성”의 밤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춘천이 낳은 박동주 시인 목사님의 긴장과 떨림이 묘한 집중력을 상승시켜 주는 가운데 크리스챤은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울림있는 말은 뇌리에 또렷이 남아 사물을 혓으로 보지 않고 예민하게 관찰하게 만듭니다.

무생물을 생명으로, 사람이 아닌 것을 의인화할 수 있는 따뜻한 시심이 더욱 더 추워져 가는 가을과 겨울날에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컨퍼런스 개최

지난 10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전국 여러 곳에서 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컨퍼런스에 참여 주신 헌신적인 분들 덕분에 컨퍼런스가 귀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병역거부로 인해 평생을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위해 애쓰신 브루너 하이디 부부의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를 시



작으로 해서 박충구교수님의 평화신학적 입장에서 한국교회가 더욱 계발해야 할 평화의 삶에 대한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활동가로 수고하시는 전쟁없는 세상의 이용석활동가의 한국의 대체복무 역사의 흔적을 되짚어 보는 시간과 개척자의 송강호박사님과 더불어 대체복무라는 보완적인 의미를 넘어 더 적극적인 평화복무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각 발제마다 진지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고 잘 준비된 강의로 인해 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루할 틈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훌륭한 인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중요함을 다시 절감하면서 흘러졌는데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할 평화는 그리 가볍지 않은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환대 사역 시작

KAC의 주요사역으로 “환대” 사역을 이번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와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춘천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는 강원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 주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참가하다 보니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임에 나왔습니다.



히잡을 쓴 모슬림 친구, 힌두교의 상징인 이마에 붉은 점을 찍은 친구, 결혼한 친구,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한 친구, 가족을 고국에 두고 혼자 온 얘기 엄마,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한국말로도 어색한 한국인의 영어도 적응이 안 되는 친구,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친구, 돼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친구 등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춘천에서 평화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만날 때마다 힘을 얻으며 이들과 함께 가는 KAC의 새로운 역사에 마음 벽참을 느낍니다.

2018년 정기총회 안내

2018년 3월부터 KAC 총무로 일하면서 많은 배움과 많은 만남을 누렸고, 또한 많은 도움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1년 차 총무로서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새로운 모습의 KAC를 빚어가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로 인해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님들과 이사장님의 도움이 단연 코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사장님과 함께 상의하기도 하고 격려를 얻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맡아 주시는 이사장님을 새로이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8년간 이사장으로 오랜 시간 섬겨주셨던 안동규이사장님, 그리고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KAC의 베풀목이 되실 남상욱 이사장님의 이취임식이 겸하여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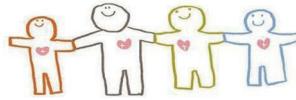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2019년도도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는 KAC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019년 아나뱁티스트 컨퍼런스

한국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폭되는 시기에 공동체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나뱁티스트의 오랜 역사적 공동체의 경험을 듣고, 여러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궁금

증을 해소해 주실 분들과 공동체의
실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2019 Anabaptist Conference



• 주제: “공동체를 말하다: 그 이론과 실제”

• 일정: 2019년 1월 19일 (토)

2:00~6:00시

• 행사장: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실

• 연락처: 033-242-9615

참가신청: 이메일 kac@kac.or.kr

• 등록비: 20,000원 (1월 17일까지)

(당일 현장 등록: 30,000원)

SC 제일은행 425-20-403665 한국아나뱁티스트 센터



일시: 2019. 1. 19 (토) 오후2시~오후6시
장소: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실)
등록비: 1월 17일까지 20,000원 (SC은행 425-20-403665)
당일 등록 30,000원
참가문의 이메일 kac@kac.or.kr 전화 033-242-9615



발표 순서

--2:00~2:10 환영의 말

--2:10~4:00 발표 및 질의응답

1. 아나뱁티스트 공동체 (메노나이트 선교사 김복기 목사)
2.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와 평화의 삶 (침례신학대학 김난예 교수)
3. 세계의 예수 공동체를 찾아서 (하늘숲 좋은나무 공동체 설은주 목사)
- 4:00~6:00 휴식, 발표 및 질의 응답
5. 화해의 관점에서 보는 공동체의 실제 (동북아 MCC Chris Rice)
6. 한국형 공동체의 삶! 그 실제! (밝은누리 공동체 최철호 목사)
7. 질의응답

민들레라고 불리우는 사랑

한국으로의 여정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원래의 목적지는 미국이었고 이후엔 잠비아여였는데 최종적으로 나의 신학배경과 알레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민들레 공동체로 오게 되었다. 사실 나는 이곳에 섬기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낯선 이방인을 그들이 섬겨준 것이었다.

민들레 공동체&농장에서의 나의 업무는 꽤 쉽지 않았다. 나는 자카르타에서 온 도시소년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시골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삶의 변화였다. 나는 육체적 노동에도 익숙하지 않았고 시작부터 건강적인 문제도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빠지고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지금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강한 삶에 매우 기쁘다. 자연 속에서 삶은 내게 성경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을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면 하늘의 별을 세는 목자들의 삶을 상상해볼 수 있게 되었다. 민들레 공동체에서 닭들을 돌보고, 염소 우유를 짜고, 농작물도 심고 거두었다. 이 모든 일은 내 평생에 처음 해 보는 일이었다. 이제는 내 스펙에서 농사 능력치 +1이 추가됐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농촌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청년 사역자였지만 민들레에서는 Community Builder로서 일하였다. 내 역할은 주변 공동체 멤버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관계 맺고, 때로는 예배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었다. 언어의 장벽이 물론 있었지만, 나는 운동, 음악, 요리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과 공동체 멤버들과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었다. 하반기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아시아문화라는 수업 커리큘럼을 직접 짜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민



Daniel Talenta, aka Dante.
말레이시아/민들레공동체

들레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수업이라나 뭐라나]

성탄절 저녁식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인 것 같다.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그리웠는데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케이크를 사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다. 단지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무척 감동이었다. 특히 그 즈음에 인도네시아에서 폭탄테러가 있었는데 공동체 친구들이 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특히 Mina, 주원, 예혁이 생각난다. 우리는 서로의 고민거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난 후 가장 그리워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MCC GSL 코디네이터 솔거와, 다른 SATLer 참가자 Allison과 Robert는 단지 동료가 아닌 내 순례길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모일 때마다 좋은 일정들, 함께 하는 시간, 한국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은 내가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게 만들었다. MCC가 한국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함께 일하는 그 문화가 너무 좋았다.

내가 적은 모든 일들은 내 여정에 하이라이트만 적었는데, 더 많은 이야기들은 크리스마스에 출시될 내 두번째 책에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랑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민들레에서 경험한 이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의 1년은 비록 완벽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사랑은 민들레라고 불리운다.

사랑을 담아

하느님의 왕국을 상상하며

안녕하세요, 2017–18 IVEP 참가자 장은희입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가고, 가을의 향기가 가득 합니다. IVEP를 마치고 2개월이 흐른 지금, 더듬더듬 1년을 회상하니, 다시 그때 그 마음이 생생해집니다.



장은희
자매
2017~18 IVEP 참가자

미국 펜실베니아로 IVEP를 가기 전, 저는 교회와 사회 이슈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접근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식의 접근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뿐,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매일 아침 신문에서 읽는 두려움과 제 개인 기도에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어요. 약자들이 처한 환경에 가슴 아파했지만, 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안녕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남북 이슈에 관해 제게 물을 때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다고 말했어요. 제가 직면한 폭력과 전쟁에 관한 이슈들은 너무 많고 크다며 뒤로 물러났고, 그렇게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어둠을 알아갈수록 기도의 힘을 믿기보다 마비되어갔습니다. ‘평화세우기’에 주의를 쏟는 사람은 나 혼자라고 느껴지고, 이 문제가 내게 큰 짐이라 느끼면서, 제 희망은 낡아갔고 믿음은 흔들렸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처럼 저도 신앙과 학업 그리고 일의 통합을 고민했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 후 실천 분야를 모색하던 중에 IVEP에 가게 되었고, 평화학과 평화운동에 대한 제 관심은 IVEP의 해를 보내는데 이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을 실천할 기회를 원했었고, 제가 일한 은퇴 커뮤

니티 Garden Spot Village에서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세 부서(Pastoral care, Life Enrichment, Therapy Recreation)에서 돌아가며 하루씩 일했습니다. 제 타이틀은 “TVEP 인턴”이었어요. GSV는 9년 동안 IVEP를 초대했기 때문에 IVEP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좋았습니다. GSV에서 저의 직무는 한국 문화 수업, 일대일 사목, 그룹 치료 활동과 이벤트, 여행안내를 돋는 일이었어요. 한국 문화 수업 초반에는 수업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대화가 자꾸 끊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대화가 끊기면 위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어려움에 갇히기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에 적응해 나갔어요. 매월 다른 주제의 수업을 준비하며 한국문화에 대해서 더 배우며, 전달이 쉬운 표현방법을 익힐 수 있었어요.

미국에 가기 전 DS-2019 서류(트레이닝 과정을 설명하는 서류)를 읽을 때 설렘을 기억합니다. IVEP의 생활은 제 기대치를 넘었어요.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훌륭한 호스트 가족과 동료들을 만났어요. IVEP의 해 동안 호스트가정, GSV동료와 레지던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GSV의 거주자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한 시간 반씩 102세의 신사 Burnard와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그를 Burny라 부르며 친구로 여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전동 휠체어에 탄 Burny와 나란히 걸으며, 그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누가 커피를 흘리더라도 하면 서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주로 제가 흘렸습니다. 체육관에서 정기적으로 같이 운동했었는데, Burny의 다음 목표는 실내풀장에서 수영이었습니다. 지금쯤 연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묘한 느낌으로 남아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Burny의 방에서 그가 모아둔 오래된

편지와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신문스크랩을 함께 보았을 때입니다. 그 시절의 미국 신문광고와 기사를 볼 기회는 흔치 않았어요.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삶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GSV 캠퍼스를 함께 걸을 때마다 그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기도해줍니다. 저는 그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같이 온 지현이 호스트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서 머물렀습니다. IVEPer에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생각은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 그 흐름을 깨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멀지 않은 곳에 지현(IVEPer)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호스트 가족과 더할 나위 없이 사이가 좋았지만, 한국이 그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노래를 들으며 한국음식을 같이 먹고, 속 터놓고 대화할 친구는 IVEP 생활에 소중한 한 조각입니다.

이제 저는 IVEP라는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IVEP 이후의 삶은 그 이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다른 나라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을 생각들을 붙잡고, 심장을 짚습니다. 어떤 진리와 훌륭한 이론도 실천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IVEP 해는 제게 그 연결고리와 같았습니다. 하느님의 도구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을 일상의 현실과 연결합니다.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되새깁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평화세우기를 연결한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느님의 왕국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가끔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나면 생뚱맞은 질문을 받곤 한다. 질문이 생뚱맞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복기 형제
MC Canada Witness

- 메노나이트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다면서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은 얼마나 되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요?
- 메노나이트들이 금지하는 직업은 있나요?
- 메노나이트 교회는 평신도들이 일을 한다는데 그러면 봉급을 받는 목사는 없나요?
- 메노나이트 교회에 찬양사역자는 있나요?
- 메노나이트 목회자들은 거의 자비량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사나요?

아나뱁티스트에 관하여 전해들은 정보에 기초하여 확인하고 싶기에 던진 이러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다. 이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기독교 그룹에 대한 호기심이기도 하거니와 직업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알고 싶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그들의 신념이나 고백, 핵심가치 등을 설명해 놓은 책은 많지만 삶의 구석구석을 적어 놓은 책은 별로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아미쉬니 후터라이트니 낯선 용어를 소개하면서 아나뱁티스트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그룹들을 뒤섞어 가며 설명을 하니, 왜 궁금하지 않겠는가?

이번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금 포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답변을 1.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들이 갖고 있는 직업관과 역사에 따른 추이 2.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이 견지하는 전문직에 대한 이해 3.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직업에 대한 이해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들의 직업관과 역사에 따른 추이

대략 500년 정도 되는 메노나이트 역사 중, 메노나이트들은 실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 그러나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시작된 16세기의 메노나이트들에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재에도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운동 초기부터 가해진 박해로 인해 아나뱁티스트 첫 세대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어 자신들의 직업을 잃고, 주류세계에서 밀려나 시골에서 숨어살거나 새롭고 낯선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유럽 메노나이트들은 아주 오랜 기간동안 농업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농업에 기반을 둔 메노나이트 공동체를 일구어 갔다. 이들이 공동체를 살리고자 농업에 기울인 혼신과 농업 중심의 결속력은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장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초기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들 중에 농부들은 거의 없었

다. 16세기 스위스, 북부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 대부분은 도시인들이었다. 그러기에 그들 대부분은 도시 내에서 살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평범한 직업에 종사했다. 초기 메노나이트 리더들 중 많은 이들은 교육을 잘 받은 편이었고 일부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가문에 속해 있었다. 예를 들어 스위스와 남부독일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마이클 잣틀러는 수도사였으며, 발타자르 후브마이어는 신학자이자 목사였다. 필그람 마르페은 토목기사였고, 프리스란드 지역 출신의 메노 시몬스는 가톨릭 사제였다. 메노나이트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손들에게 전해준 <순교자들의 거울>이라는 책은 이러한 리더들에 대한 기록은 물론 좀 덜 유명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장장이, 모자를 만드는 사람, 수공예가, 직물공으로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6세기의 박해는 여러 지역에서 행해졌으나, 네덜란드 지역은 1579년에 비교적 일찍 박해가 종료되었다. 그래서인지 네덜란드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메노나이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직위에 오르기도 했다. 네덜란드와 북부독일의 메노나이트들 중에는 의사들이 꽤 많았고,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교회의 의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목사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일을 하였고, 낚시 배와 포경선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다. 목재상과 직물상인들도 있었다. 네덜란드 메노나이트들은 예술에도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 카렐 반 맨데르(Carel van Mander)는 시인이자 화가로 알려져 있다. 얀 루이肯(Jan Luiken)은 시인이자, 화가이자, 동판화가로서 반 브라흐트의 <순교자들의 거울>에 있는 많은 동판화를 제작하였다. 네덜란드의 세익스피어로 알려진 유스트 반 덴 본델(Joost van den Vondel)이라는 사람은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메노나이트 교회의 집사였다. 저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는 메노나이트들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많은 메노나이트들과 친분을 갖고 있었으며, 어쩌면 그의 화풍에

메노나이트 화가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언급되곤 하였다.

이렇게 네덜란드 메노나이트들이 의학, 사업 및 예술 분야에서 탁월성을 드러내게 된 것은 네덜란드 지역에 16세기 말부터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메노나이트들이 오랜 기간동안 모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 안에서 이러한 분야의 직업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스위스-독일의 취리히나 다른 도시에 비해 스위스나 남부독일의 외진 시골은 메노나이트에 대한 박해가 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자유를 찾아 도피하는 삶을 살았던 메노나이트들에게 땅을 소유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들은 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작물 생산하는 능력과 낙농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 메노나이트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노나이트들이 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상황은 여러 곳에서 자주 목격되었다.

부유한 귀족들은 메노나이트들을 농부로, 기술공으로 고용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내에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특별히 후터라이트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머물 곳조차 없었는데, 몇몇 동정적인 귀족과 영주들이 도움을 주었다. 만약 이들이 없었더라면 후터라이트는 더 이상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후터라이트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도자기 공예라든가, 대장장이, 신발 만들기, 목수, 책 제본 등의 분야에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 출신의 메노나이트들은 프러시아나 훗날 러시아의 초청을 받아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농부와 장인들이 상당수 있었

다. 프러시아에 거주한 메노나이트들은 비스툴라 강의 저지대를 개간하였다. 이들은 치수(수문학)를 담당하여 작물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메노나이트 역사 속에서 이들이 농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서 거둔 최고의 업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였다. 이 지역에 채 개간되지 않은 많은 땅이 있었는데 캐서린 여제는 이곳에 자치구를 형성해 준다는 조건 아래 메노나이트들을 초청하였다. 메노나이트들은 러시아 정착 초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땅을 개간하였다. 그들은 러시아의 대초원으로 알려진 스텝지역을 비옥한 토양으로 일궈냈고, 그곳에서 이들은 곡물은 물론 다양한 과일 나무들을 심고, 가축들을 길러냈다. 요한 코니스(Johann Comies, 1789–1848)는 탁월한 농업전문가로서 러시아 당국을 상대로 메노나이트 대사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몰로치나(Molotschna)와 코르티자(Chortitza) 자치구에 농업 및 교육을 증진시켰다. 훗날, 요한 코니스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가 된 지역에 극심한 박해가 생기자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후 테라이트들에게 공동으로 농업과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의 농장이 번영하면서 인구가 증대하자, 러시아 메노나이트들은 밀가루 방앗간, 낙농관련 공장 및 농기구 공장 등 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농부나 일꾼으로 살아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가난하게 된 러시아 귀족들의 개인 저택을 사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스스로 땅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동료 메노나이트들의 농장에서 일꾼으로 혹은 장인으로 일을 하였다.

메노나이트들은 매우 근면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메노나이트들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파라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벨리스 등 여러 나라의 초청을 받았다. 사실상 새로운 세상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메노나이트 이민자들은 농사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했다. 그 결과 메노나이트 이민 첫 세대들은 농부들이

많았다. 이는 아미쉬, 후터라이트, 올드 자치구, 좀더펠트, 올드오더 메노나이트와 같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수성향을 띠는 그룹들과 메노나이트 교회(The Mennonite Church), 메노나이트 총회교단(General Conference of Mennonite Church), 메노나이트형제교회(Mennonite Brethren) 등 훗날 진보성향을 띤 그룹들의 이주 초기의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북미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진보성향을 띤 메노나이트 그룹과 교회 멤버들의 직업에 큰 변화를 몰고왔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은 기계화되었고, 농업 경영비가 압박을 받았고, 농업 또한 대규모화로 전환해야 했다. 이러한 다양한 압력에 대해 진보성향의 메노나이트들은 더 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메노나이트 자녀들 또한 눈에 띄게 농업보다 더 높은 수입과 정기적인 급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직이나 관리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등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서 농업과 거리가 먼 전문종사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메노나이트들의 직업에 큰 변화가 촉진되었다.

최근에 시행된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북미 메노나이트들은 농업을 떠나 전문직과 사업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노나이트 총회교단과 메노나이트 교회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80년, 20년 동안 농부들의 숫자가 반으로 대폭 줄었다. 1960년 메노나이트 총회교단에 속한 회중의 남성인원 중 32%가 농부였는데, 1980년에는 16%로 줄었다. 비슷한 시기인 1963년 메노나이트 교회 회중의 남성인원 중 39%가 농부였는데, 1982년에는 19%로 줄었다.

농업에서의 대탈출이 일어난 같은 시기에 위의 두 교단에 속한 전문직과 기능직에 고용된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메노나이트 총회교단에 속한 전문직 남녀는 16%에서 28%로 늘어났다. 메노나이트 교회에 속한 남성 전문종사자가 8%에서 16%로 늘어났고 여성과 남성을 합한 비율은 10%에서 20%로 늘어났다. 1960년에서 1980년 동안 메노나이트 총회교단에 속한 멤버들 중 매니저, 공무원, 경영소유자로서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5%에서 8%로 늘어난 반면 1963년에서 1982년 동안 메노나이트 교회는 5%에서 11%로 늘어났다. 1980년대에 미국과 캐나다 메노나이트 형제교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982년 기준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0%,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북미의 진보적인 메노나이트들에 나타난 직업의 변화추이는 매우 분명하다. 많은 이들이 생활을 위해 농업을 떠나 사업과 전문직으로 옮겨갔다. 진보그룹에 속한 북미의 메노나이트 여성들은 이웃집 여성들처럼 집 안의 일보다 밖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메노나이트 여성들이 교사, 간호사, 사회사업처럼 비교적 낮은 봉급을 받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였지만 남성들이 전문직을 갖는 만큼 선호하였다.

그러나 북미의 진보적인 메노나이트 그룹들이 농업을 떠나는 추이가 분명했던 반면, 후터라이트나 아미쉬처럼 문화적으로 보수성향을 띤 그룹들은 다른 직업으로 전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농업을 선호한 이유는 자신들이 속한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직업에 그들의 종교적 영성이 깊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직업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그룹의 영향아래 놓여 있었다. 후터라이트 젊은 남성들은 짧지만 일정기간 형제들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에서 삶을 살아보는 기간을 갖는다. 이러한 경험을 한 후, 대부분은 후터라이트 공동체로 돌아와 농업 혹은 관련 영역에서 일하게 된다. 이 때 일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가 결정한다.

아미쉬들은 후터라이트들 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갖지만, 여전히 농사를 선호한다. 그러나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 외곽의 땅값이 비싸져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짐에 따라 수많은 아미쉬들 특별히 젊은 아미쉬들은 일정기간 동안 농장을 떠나 일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농장을 얻어 농사를 짓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지만 만약 농장이 없이 일해야 한다면, 목수와 공장 일을 선호한다.

보수적인 그룹과 진보적인 그룹 사이에는 ‘그리스도안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올드오더 메노나이트와 같은 그룹들이 있다. 그들도 농사일과 농업 관련업들을 선호하지만 북미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경우 농장을 떠나 다양한 일에 종사하곤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시가 아닌 시골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를 선호한다.

남미의 메노나이트들은 북미의 메노나이트들에 비해 비교적 농사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미의 정부가 메노나이트들에게 자치구를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땅 값이 싸기 때문이다. 북미에서 자치구는 후터라이트 외에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저지대독일어(Low-German)를 사용하는 네덜란드와 러시아 메노나이트들 그리고 아미쉬(스위스-독일) 농경 자치구들은 멕시코, 파라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벨리스에 주로 위치해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초기 자치구 시절만큼 이러한 자치구들은 큰 번영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러한 시대와 직업의 변화에 따라 북미 사회에 동화된 진보적인 메노나이트 그룹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에 금지되었던 직업관을 갖고 있지 않다. 메노나이트들만 모여살던 자치구나 농업 환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업가, 법조인, 의료 및 다른 전문인들로서 예전에 금지했거나 별로 추천하지 않던 일들을 하나 둘씩 받아들이게 되었다. 20

세기 중반까지 법조계에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진보적인 메노나이트들조차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변호사였던 조셉 랩(Joseph Lapp)¹⁰ 버지니아의 동부 메노나이트 대학(Eastern Mennonite College)의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메노나이트 내에 상징적이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진보적인 메노나이트들은 1980년대까지 알콜 음료나 담배를 파는 일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는 20세기 초반, 북미에 일어났던 철제운동의 영향이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현대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메노나이트 그룹들은 군복무라든가 직업군인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평화적 입장과 충돌하고 도덕적으로 타협을 강제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지해왔다. 1700년대 초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직업에 대해 잠시 관용을 베풀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최근 미국에서도 이러한 직업에 대해 눈감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와 러시아 전통의 메노나이트들은 스위스 전통을 가진 메노나이트들에 비해 정부의 입장을 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 왔다.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 중에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메노나이트들은 캐나다에서 더 자주 눈에 뛴다.

유럽 배경이 아닌 다른 지역의 메노나이트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들은 거의 없지만, 다른 대륙의 메노나이트들은 북미나 남미 그리고 유럽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메노나이트들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에는 상당히 많은 메노나이트들이 있는데, 이들은 농업을 선호하긴 하지만 시골에 거주하면서도 여러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의 전문직에 대한 이해

한편 한 세대 전만하더라도 전문직이라고 하면 변호사, 교수, 의사, 목사와 같은 직업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많은 전문 직종들이 생겨났고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직업의 독특한 특색을 따라 전문직이 분화되고 있다. 전문직이란 집중적인 훈련, 특별한 지식, 엄격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직은 엄격한 자기 통제와 공공의 선을 위한 봉사정신, 법조계처럼 면허나 자격증을 구비해야 하는 전문성, 특정 전문적인 기관이 발행하는 회원의 자격기준 등을 통해 다른 직업들과 차별화되어 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직업군들은 아래저래 이러한 특성들에 맞추어 사회의 권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문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나가고 있다. 권력의 정도에 따르면 무엇이 전문직이고 무엇이 전문직이 아닌지 깔끔하게 분류할 수 없지만, 힘이 없는 직업부터 힘이 있는 직업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나열해 보여줄 수는 있다. 전문직은 독점적인 전문직과 지배적인 전문직이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결국 스펙트럼의 끝에는 아주 높은 권력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직을 통해 형성되는 권력이란 한 직업이 다른 직업들을 혹은 그 일의 본질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따라 그 한계가 정해진다. 간단히 말해 전문직의 권력은 노동시장의 어느 한 부분을 독점하려들고 전문직에 들어오려는 사람을 통제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일의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일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일에 필요한 규제조항을 정하고, 그들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결정한다. 또한 전문직을 통해 획득한 권력은 스스로 다른 직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자유를 부여하려 들고, 실제로 다른 직업군들 위에 군림하려든다. 전문직 스펙트럼에서 꽤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의사를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자신들의 일의 성격과 조건들을 통제하고 간호사, 의료기술자, 물리치료사, 약사 등과 같은 관련된 직업 군 위에 군림한다. 비록 이러한 권력이 해 자체가 그 직업을 분석하는 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과 그 직업이 가져다주는 권력을 따로 분리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메노나이트들은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문직에 진출한 메노나이트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 특정 전문직을 혐오해왔기 때문이었다. 16세기 아나뱁티스트 운동이라는 배경에서 아나뱁티스트들은 전문적인 목사들에 대한 통렬한 비난과 반성직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 세기 동안 메노나이트들 사고방식에 깊게 자리해왔다. 실제로 유럽에서 발생한 강도 높은 박해는 이들에게 주류 문화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주류 사회에 대해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분파적인 성향을 갖게 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메노나이트 회중들에게 비순응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고, 실제로 이들은 분리주의적인 태도로 시골에서 그들에게 맞는 삶을 살아왔다. 전문직은 세속 사회 구조의 핵심인 세속적인 권력, 명성, 지위를 좇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직업들은 메노나이트 삶의 기준인 겸손과 세상과의 분리라는 가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교회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특별히 법집행은 메노나이트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며 관련 직업을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이처럼,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시골에서의 삶과 분리주의를 추구했던 문화는 메노나이트들로 하여금 전문직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대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들로서 가르치는 일과 의료행위는 메노나이트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진 전문직 중 몇 개 안되는 직업군이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메노나이트들의 전문직은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 전 영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제2차 세계대전과 뒤이어 강제된 병역징집 기간 동안 메노나이트들은 병역대체복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메노나이트들이 도시지역과 전문적인 삶의 영역 즉 의료관련 직업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부터 수많은 메노나이트 그룹들은 농업의 쇠퇴, 빠른 도시화, 교육의 기회 증가, 문화적 동화로 인해 전문직에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다. 반면, 아미쉬와 올드오더 메노나이트 그룹들은 여전히 고등교육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농경생활을 영위하면서 가능하면 전문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1972년에 다섯 개의 메노나이트 그룹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카우프만과 하더는 27%의 남성과 38%의 여성들이 전문직과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 전체 남성들 중 14%의 남성과 15%의 여성들이 전문직과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태와 대조되었다. 이처럼 1972년에 메노나이트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문직에 종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들보다 더 많이 전문직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정 공동체에서는 농업에서 전문직으로 이직하는 일이 매우 급속히 진행되었다.

1974년 호스테들러와 그의 동료들은 펜실바니아주의 랑캐스터 지역에 있는 메노나이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조부모 세대는 2%, 부모세대는 9%만이 전문직에 종사하였으나, 47%에 달하는 학생들이 전문직을 갖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일한 공동체에 사는 비메노나이트 학생들과도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두 세대가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메노나이트들은 전체 사회 속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인들이 되었다.

1982년 메노나이트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요더는 16%의 남성과 27%의 여성들이 전문직과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 전체 남성들 중 15%의 남성과 16%의 여성들이 전문직과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태와 대조되는 수치였다(요더의 메노나이트 교회 통계조사).

전문직에 종사하는 메노나이트 여성들의 수치가 높은 것은 교사, 간호사, 사회사업과 같은 메노나이트들이 권장하는 사회윤리와 잘 맞아 떨어지는 직업으로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메노나이트들은 사실상 모든 직업군에 진출했다. 1976년 메노나이트 사업 및 전문가 인명부에는 다음과 같이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변호사(33), 의사 및 외과의사(145), 교수(120), 정신과의사(5), 심리학자(12). 연예계, 정치계 및 목회자들은 이 인명부에 전문직으로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전문가들과 신학대학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나뱁티스트 운동의 초기에 견지했던 반성직주의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메노나이트들이 농장을 떠나 대거 이직을 하게 된 특기할만한 두 가지 변화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수많은 메노나이트들이 땅을 경작하는 데서 노동집약적 직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문직으로 이직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농부들이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직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봉사중심의 직업들은 메노나이트들을 농사에서 전문직으로 쉽게 이직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전문직을 통해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메노나이트들은 자신들의 펠로우십, 공동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특별 전문가 그룹들을 조직하였고, 메노나이트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정신건강전문가 협회 등이 이러한 전문가 협회의 대표적인 예이다.

3.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직업에 대한 이해

글을 시작하면서 소개한 몇 가지 질문들을 다시 살펴보자.

- 메노나이트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다면서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은 얼마나 되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요?
- 메노나이트들이 금지하는 직업은 있나요?
- 메노나이트 교회는 평신도들이 일을 한다는데 그러면 봉급을 받는 목사는 없나요?

- 메노나이트 교회에 찬양사역자는 있나요?
- 메노나이트 목회자들은 거의 자비량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사나요?

위의 첫 두 질문은 교회 밖의 직업에 대한 질문이라면 나머지는 교회안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두 질문은 역사적 추이와 전문직에 대한 글을 통해 대략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소위 성직이라고 부르는 교회 안의 직업에 대한 메노나이트 입장은 어떠한가? 우선 간략하게 답변은 메노나이트들에게 성직이란 없다고 해야겠다. 한마디로 메노나이트들은 사람들이 거룩한 말씀, 거룩한 장소(성소), 거룩한 사람(성인), 거룩한 물건(성구)이라 칭할만한 특별한 거룩은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 거룩한 것일 뿐이다. 즉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의 전부일 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직의 개념을 반대했으며, 거꾸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점차 성령님의 활동과 능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은 찬양이라는 행위, 목회라는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물론 운동 초기와는 달리 도시화, 전문화된 현재 기준의 교회처럼 목회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봉급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상호책임을 지겠다는 언약 속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의 기능일 뿐이지 위계질서나 특별한 은사로서의 지위가 아니다. 누군가 교회의 일을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 해당 교회의 회중이 결정하는 대로 봉급을 받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 찬양사역자는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꼭 재정적인 후원 내지는 봉급을 받는 사역자로 연결될 당위성

은 없다. 그리고 메노나이트 목회자들이 거의 자비량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사실 기존의 교단처럼 도시의 교회에는 대부분 봉급을 받는 목사들이 일하고 있다. 다만 목사들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들이 상호 책임을 지는 공동의 목회가 실현되고 있을 뿐이다.

위에 언급된 아미쉬, 후터라이트 공동체를 별도로 이야기한다면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이들 공동체 안에는 봉급을 받는 목사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삶이 예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찬양사역은 분화되어 있지도 않고, 찬양을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멋지게 인도하거나 연주를 해야 할 그런 음악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자비량이라는 말도 개념도 필요 없다. 그 말은 이러한 질문이 우리가 물려받고 소개받은 주류교회의 산물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거기에는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적인 틀, 기준, 관습이 투영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이야기할 때 기존의 교회는 막스 베버와 마르크스와 칼뱅과 청교도와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를 이야기해 왔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해서 직업을 이해해온 현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성경적인 직업관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성공적이란 의미와 무관한 것일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학벌주의, 성공주의 혹은 성취주의, 천민자본주의, 권력 등을 추구하며 올바른 신앙에 기초한 직업을 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질문해야 할 것이다.

일과 관련하여 지혜를 제공하는 성경말씀을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이 땅 위의 직업관에 맞추어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야 말로 견강부

회가 되고 말 것이다. 결론을 정해 놓고 논리를 전개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하지는 않을까 싶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는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직업관을 갖고 있을까? 궁금할 따름이다.

*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들의 직업관과 역사에 따른 추이’는 『*The Mennonite Encyclopedia V*』 pp. 644–646에 실린 표제어 직업을 ‘아나뱁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의 전문직에 대한 이해’는 pp. 724–726에 실린 표제어 전문직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 *The Mennonite Encyclopedia*, Herald Press, 1990
- 존 호퍼, 김복기 옮김,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역사』, KAP, 2008
- 코넬리우스덕, 김복기 옮김, 『열두 사람 이야기』, 대장간, 2011 (요한 코니스 편 참고)
- 월터 클라센, 김복기 옮김, 『아나뱁티즘: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KAP, 2017
-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림 옮김, 『아미쉬 사회』, 생각과사람들,
- 코넬리우스 덕, 김복기 옮김, 『아나뱁티스트 역사』, 대장간 2014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 들어 온

난민들을 돋는 몇 가지 제안

Jubilee Partners 쥬빌리 파트너

1979년부터 난민들을 섬기는 – Christian Service Community

“너는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네 민족처럼 대해야 한다. 그리고 너 자신인양 그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을 때에 너 또한 이방인이였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19:34

여기에 있는 이 제안들은 아마 조금 벽차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 도착한 난민들이 새롭게 배워야 할 것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을 보며 얼마나 벼거울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친구가 되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면 되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 관심 그리고 우정입니다.

아무도 프로젝트를 원하지 않아요. 다만 친구가 필요할 뿐이랍니다.

사건

*그들의 이름을 알아보세요.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배우세요.

*서로서로의 거처를 방문하세요. 그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동네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행사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가족의 사진이나 이야기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들이 겪은 전쟁의 이야기나 난민캠프에서의 삶에 대해 꼬치꼬치캐내지 마세요. 난민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어왔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필요해요. 이야기가 표출되기 시작하면 궁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세요.

그들이 살던 나라의 기원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정치적인 상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그리고 시간, 성별, 역할,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것을 도우세요.

소통

*대중교통체계를 안내하면서 도와주세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도우세요. 운전자의 지침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하며, 누군가의 차를 타고 연습할 수 있게 하며, 좋은 중고차를 안내해 주고, 운전보험에 드는 법 등을 알려 주세요.

언어습득

*성인들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한국어로 읽고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서식들을 완성해야 하는지, 의사들과 소통하는 간단한 단어들과 처방전의 내용이나 영수증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교육

*자녀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배움에 필요한 물품이나 가방이나 아이에게 맞는 옷과 신발을 제공해 주세요.



*학교와 배움에 필요한 일들을 연락해 주고 연결시켜 주세요.

*자녀교육에 대한 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음악이나 무용이나 운동이나 캠프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주세요.

취업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을 통한 방법입니다.

*취업 시 필요한 문서작성, 면접방법 등을 도와주세요.

의료혜택 및 사회복지

*병원에 갈 때 함께 가주세요.

*필요하다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하게 도와주세요.

종교

많은 난민들에게 어려운 시절 그들을 지탱하도록 도운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들의 삶에 트라우마를 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우정은 여러분의 종교적 기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관심이 있다면 신앙공동체에서 양육받고 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부분은 확실한 신앙을 가진 리더쉽 스킬과 은사와 함께 갑니다.

정착

옷이나 그릇이나 가구, 속옷, 냄비, 팬, 가전기구 등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가구가 무엇인지를 물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남는 물건들을 그들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문화적 취향을 이해하시고 집안의 필요도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세나 월세집을 얻는 방법, 집을 관리하거나 고치는 기본적인 방법 혹은 수리공을 부르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옮긴이: 문선주〉



예멘 난민과 이웃되기



박 미 영 자매
제주하늘가족교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자매가 예멘인 한 가족과 같이 살게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이방인 가족은 난민이란다. 난민은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동북아의 작은 섬 제주에서 그 단어는 현실감 없었다. 그 낯선 단어가 나의 일상에 들어오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난민반대 여론이 팽배하고, 관련된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맘카페 중심으로 난민혐오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난민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예멘인들과 제주인들이 만나는 ‘희망학교’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예멘사람들을 만나고, 예멘의 문화와 전쟁상황등을 들었다. 대부분이 20대 초반 청년이었다. 우리 아이들 또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제주교회공동체연합에서 난민대책위의 김성인형제를 초청해서 난민의 상황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들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와 연결된 예멘인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었다.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산책하고,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의 중재자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시도했다. 직접 그들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채워주는 것은 최대한지양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



이었다.

공동체교회연합회가 도왔던 가족은 다섯딸들과 함께온 자말씨네,

그리고 4형제와 조카 가족이 함께 온 10식구의 알리씨네다.

자말씨는 공동체교회연합회 한라산둘레길 걷기에 초대됐다. 허잡을 쓰고 긴 치마를 입어 불편해 보이기도 했지만, 늘 갇혀 지내다시피한 그 가족은 제주도 숲에서 즐거워했다.

자말씨네는 큰 아이가 19살, 그 아래로 자녀4명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교회공동체연합에 홈스쿨하는 가정이 있어 자말씨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다. 홈스쿨에서 학습이라는 것이 노는 것이고, 함께 먹는 것이고, 들로 산으로 자연을 느끼는 것이라서 아이들을 훨씬 빨리 서로에게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즐겁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알리씨는 식구 10명으로 대가족이다.

3형제 부부, 막내 동생, 친적조카 부부 그리고 제주에서 태어난 아기까지.

알리씨의 부모와 큰형 가족은 예멘이 있어 여기서 돈을 벌어 전쟁터에 있



는 그들이 쓸 생계비도 보내야 하는 형편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저희 굴 농장에 2사람이 한달 동안 일하기로 했다. 과수원의 일은 늘 외부 인력을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을 만들면 할 일은 있다. 과수원 담 정리, 굴나무 주변의 넝쿨정리, 겨울에 하려던 과수원바닥에 파쇄목 깔기 등등. 그리고 이웃에 있는 농가에 일거리 까지.

알리씨는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하다. 그리고 영민한 이 예멘인은 참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해 주었다. 일이 서툰 조카의 몫까지 열심히 해주었다. 예멘사람들이 대체로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알리씨는 그렇지 않았다.

이웃 농장에 일을 하러 갈 때는 첫날은 남편이 동행을 했다. 소개하는 입장에서 농장주와 예멘인들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기위해 남편도 같이 일을 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키위농장에서 생애처음으로 키위 수확을 해 봤다.

한 달이 지나도록 일을 하며 알리씨와는 친하게 되었으나, 언어의 장벽으로 꼭 필요한 이야기만 간단히 하고, 일을 할 땐 묵언수양모드로 갈 수밖에 없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

알리씨가 육지로 떠나기 이틀 전에 예멘인 목사님이 제주에 왔다. 뱃속에서부터 무슬림으로 살아온 알리씨에게 한국 땅에서 주어진 자유에 대해, 쿠란과 성경의 차이에 대해 전했다. 예멘말로.

뭍으로 올라가는 전 날 마지막으로 4형제가 와서 우리 과수원에서 일을 했다. 육지에서 체류비를 벌기 위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바래다주는 차 안에서 알리씨가 그동안 제주에서 도움을 입은 사람들에게 전화로 감사인사를 하는 것을 봤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한국사람들은 이웃이 되었던 것이다.

제주도에 온 예멘 바로 알고 이해하기

지난 5월에 방문했던 예멘사람들 중에서 360여명이 인도적 체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도를 벗어나서 육지에 와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2013년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가 선택한 결정으로는 야박하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적 체류라도 만족해 하면서 육지를 향해 떠나는 예멘민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난민 인정이 되면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취업직종제한이 없고 자영업도 가능한 신분이 됩니다. 예멘에서의 특수한 자격증이 있다면 그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지역, 직장 건강보험도 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체류자격은 F-2상태로 있게 되며, 체류기간은 3년이지만 사실상 무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비자를 해외 한국 대사관에서 얻어 한국에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여권과 유사한 여행증명서를 받아 예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반면, 모든 예멘인들은이 받은 인도적 체류일 경우에는 취업에 적지 않은 제한이 따릅니다.

취업허가를 기간마다 새로 받아야 하며 취업이 가능한 직종이 제한됩니다. 사실상으로도 고용주가 G-1비자를 몰라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사회보장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직장 건강 보험은 가입은 가능하나 지역건강보험은 현재 가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게 되면 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으로는 ID카드에 난민신청자와 동일하게 G-1으로 표기되나 실제로는 G-1-6입니다.

1년 이내가 체류기간이나 사실상으로는 연장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멘 상황 변동에 따라 연장이 불허될 가능성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비자를 얻어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생이별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듯합니다. 물론 여권의 역할을 하는 여행증명서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난민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단 1명의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이 인도적 체류를 계속 연장하면서 무기한 한국에 머물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한국 기독교 안에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과 타종교에 대한 혐오를 생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예멘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예멘은 대표적인 세계 저개발국가로 “중동의 방글라데시”로 불립니다. 인간 개발지수가 세계사 174개국 중 148위이며, 인구 성장률은 최근 세계 2위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극심한 빈곤으로 인하여 보건, 교육, 의식주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소득은 2017년 \$449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멘 내전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1978년부터 1997년 통일 이후까지 대통령 알리아ップ둘라 살레의 32년간 장기 통치 권좌에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실각 후, 만수르 하디의 집권이 시작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예멘 북부 사다 주와 그 주변을 점령한 후 수도 사나까지 점령하여 대통령 정부는 퇴각하게 됩니다. 사우디 (수니파 종주국)가 예멘 공습 및 지상군을 투입함으로써, 이란 (시아파)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대리전 성격의 내전이 예멘땅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전국토가 외세 전쟁터로 이용되고 모든 재산과 자원이 수탈되던 19세기 초반 우리나라의 옛 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오늘날 펼쳐지는 예멘의 위기상황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감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UN사무총장 Antonio Guterres는 예멘전쟁을 2018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라고 말했습니다. 5년째 내전 중인 예멘은 국민 2800만 명 중 200만 명이 피난 갈에 올랐고, 약 19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2800만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이 원조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100만의 콜레라 감염과 전투로 10,000명이 피살되고 40,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구상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90만명이 전염병에 감염돼 2,100명이 사망했고 당장 식량지원이 긴급한 사람이 2,000만명에 달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2017년 약 5만 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30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5세 이하의 아동이 예방 가능한 원인에 의해서 10분마다 1명꼴로 사망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수치입니다.

제주에 온 예멘난민은 2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약 19만 명이 해외로 탈출한 과정 속에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반군 후티 군대의 징집 강압을 피해 예멘을 탈출한 예멘 젊은 청년들과 일부의 가족들이 예멘 아덴 공항에서 수단, 말레이시아를 거쳐 549명이 제주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상을 요약해 본다면, 전쟁의 피폐함 때문에 이주한 전쟁 피난민이며 시아파 반군 후티의 강제 징집을 피해 온 남성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18~35세까지 구성된 남성, 여성은 48명, 가족 5가정, 커플 5가정이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반군 호티가 장악한 수도 사나, 타이즈, 호데이다 출신들이 많습니다.

한국입국배경과 이후 임시조치에 대해 알아 보면, 제주도는 2002년부터 관광유치 목적으로 1달간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쿠알라룸프르 제주간 AirAsia 직항이 개설되어, 45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이 2018년 4~5월에 집중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4월 30일부터 예멘난민들을 제주도로 제한하여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예멘을 제주 무비자 예외국가에 추가합니다. (기존 1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에 예멘을 추가하여 12개국이 됨)

예멘 사람들은 아랍어를 사용하며 아랍 전통문화 사회입니다. 가난하지만 인근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거주민들의 유입에 관대한 나라와 국민입니다. 국민이 절대 다수는 보통의 순박한 아랍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부 교회에서 예멘 난민들이 전쟁 중인 나라를 무책임하게 버리고,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 온 세력들이라고 오해하고 곤혹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균형 있는 이해를 돋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들?

예멘의 전쟁은 내전 (자가 종족까지의 전쟁)과 국제전 (타국간의 전쟁)이 혼합된 아주 복잡한 전쟁입니다. 즉 정치적 세력 (정부와 반군 후티), 이란 (시아파)와 사우디(수니파) 간의 지역대결 전쟁입니다. 전쟁의 폭격은 주로 사우디 공군의 공중 공습 폭격으로 온 나라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타 반군의 폭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은 매일 일어나 총 싸움을 하는 한국 전쟁 같은 모양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지역을 달리하며 사우디 폭격기나 미사일들이 한 동네의 주요 시설들과 거주지들을 폭격하는 간헐적인 파괴작전으로 진행되는 장기 전쟁입니다. 사우디의 공중 공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5년 동안 지속된 아주 지루한 파괴적 장기 전쟁과 내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이나 긴급한 개입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온 예멘 사람들은 하루 속히 예멘의 전쟁이 멈추고 자국으로 돌아가길 소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인데 왜 나라를 위해 적과 싸우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망쳐?

이들의 적이 누구란 말입니까? 마을들을 파괴하는 적이라면 공중 폭격과 미사일을 쏘아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일 것인데, 예멘아 사우디를 공격할 능력이 있을까요? 온갖 현대 무기로 무장한 사우디는 지상군이 예멘에 들어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미사일과 폭격기를 띄워 공중전으로만 온 천지를 파괴하고 있는데 어디로 누구를 향해 유탄전을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전의 성격인데 반군 후티군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아파도 자국민인데 자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싸우란 말인가요? 만약 한국의 어느 지역과 다른 지역이 내전 상황이라면 왜 다른 지방 사람과 더 죽이며 싸우지 않고 피난해 나왔냐고 따지며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자국민이 자국민들을 많이 죽이며 싸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멘인들이 이리저리 손쓸 수 없

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해 중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 양상의 복잡함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비난하는 모습은 잔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한국을 이슬람화하려고 온 불순한 의도를 갖고 들어온 이슬람교도들?

이 장기전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예멘인들은 하루하루 생을 연명하며 영 아들은 영양실조로 수십만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고 가스나 물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베티며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땅을 두고 국제 난민으로 나설 용기조차 없이 주저 앉아 있다가 더 이상 인내의 한계에서 가족 중의 한 사람이라도 피난하여 먹을 양식을 위해 집안에서 가장 건강한 청년들을 비행기에 태워 타국살이를 감행하며 수단으로 빠져 나와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없어 제3국을 모색했고, 한국이 그 중 여행 가능했던 한 나라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슬람화를 위해 한국을 선택해 온 종교적 의도를 갖고 온 반기독교 세력이라는 해석은 한국을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외국인을 향해 이들의 종교가 무엇이냐의 종교적인 프레임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균형을 잃은 종교 방어 논리입니다.

돈 벌러 온 것이니, 난민이 아니다?

경작할 땅도 파괴되었으니 어떻게 먹을 것을 만들겠습니까? 시장과 상점이 다 무너졌으니 무엇으로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이들이 일자리를 위해 왔으니 난민이 아닐까요? 본국을 떠날 때 놀면서 지낼 위치로 갈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난민일까요? 난민자로 들어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는 나라에 거처하길 소원하는 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일자리를 원해서 난민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경제적 이주민들이라고 속단하는 근거가 맞는 것일까요? 예멘이 전쟁 중이 아니라면 모

를까, 전쟁 중이 분명한데도 왜 이런 판단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세계 어느 난민이건 국경을 건너 온 순간 언제든지 일하며 노동하여 자신과 두고 온 가족들의 생계를 돋기를 원한다는 기본적인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멘인들은 전쟁 피난민들입니다. 예멘의 전쟁에 대한 깊은 내막과 복잡한 예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나온 사람들이라는 등, 단지 돈 벌러 온 아주 노동자라는 등, 이슬람 전도를 목적으로 온 이슬람 집단의 진입으로 윤운하는 것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슬람 공포증’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무지와 혐오에 기반을 거짓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전쟁의 기근에서 나온 나그네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그네에 대한 우리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10:9)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신10:18)”

이것은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자료제공: 한국 아나뱁티스트 저널 편집부)



예멘친구 만들기

7월 20일 예멘 난민 제주도 첫 번째 방문

사담(Sadam)은 이름을 소개하며 이라크의 유명인 사담 후세인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다.

26살의 사담은 내전으로 당한 육체적 고통을 몸에 지니고 있었지만 현재 어렵게 잡은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니 의료지원 또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누나 셋과 여동생 한 명 그리고 부모의 도움으로 꼭 살아 돌아와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난민의 길을 떠났다.

그리고 두 달 전에 제주도에 왔다.

일하던 중 폭격으로 인해 8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사담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그렇지만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난민 길에 오른 그는 2015년 당신 사진을 보여주었다. 허벅지만큼 부은 발목과 곳곳에 박혀있는 파편은 당시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에 지금도 매일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사담에게 조심스레 고향이 그립지 않느냐고 물었다. 스마트 폰을 통한 매체를 통해 수시로 예멘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가족들과 연락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진 일 교목사
광주제일침례교회

대부분 인프라가 사라지고 통제를 받는 예멘은 특정한 지역에 가지 않으면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가족들이 어렵게 사담에게 연락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연락수단인 스마트폰을 포기하지 못했다.

몇 달 전 사담은 가족들과 통화를 했다고 했다.

누나들과 엄마는 사담에게 건강은 어떤지? 지내는 곳의 날씨는 어떤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만나는 사람들이 잘 해주는지? 등등 한국의 부모들이 멀리 보낸 자식들에게 하는 일상적인 그러나 가슴 아픈 질문들을 걱정과 함께 던지며 내내 울었다고 했다. 그의 육체적 통증은 이별로 인한 통증에 비견할 것이 못되었다.

사담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했다. 한국 국민들이 예멘 난민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지금 이슈화 되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예멘인들이 출도(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가는 것)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를 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자기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왔기에 테러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담은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의 시선이 불편하지만 괜찮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테러리스트도 아니며 전쟁을 증오하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럼에도 사담은 동행 내내 밝고 긍정적인 표정이었다.

사담과 핫산(동행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을 오해해서 그리고 좀더 살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사담이 그런다.

“진(나를 목사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그냥 미스터 진이라고 부르라 했다)과 함께 온 일행들을 어제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일 마치고 온 직후라 몸이 피곤했는데 자신들을 만나고 살피기 위해 일부러 육지에서 왔

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찍은 기념 사진을 숙소에 가서 확인했는데 밝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주도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중간 중간 뒷 자리에 앉은 친구 핫산에게 대화 내용을 설명하며 웃는 그들에게 나는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우리 일행이 그리스도인이며 목사인 것을 짐작하여 알고 있었다.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준 세인트하우스 사장님이 목사인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 명이 한 숙소에 묵으며 예멘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숙소에 내려주기 전 사담과 약속했다. 다음에 제주도에 올 땐 꼭 예멘 음식을 해달라고 말이다. 재료는 우리가 준비할 테니 맛있는 예멘 음식을 먹여달라고 했다. 사담은 꼭 다시 와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좋은 친구를 만들게 되었다.

23살의 나이차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별써 그들이 그립다.

8월 22일 기회는 많지 않다.

사담을 만날 수 있을지, 만나서 사담이 해주는 예멘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래도 다시 제주도로 간다. 그와 다시 보자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의 제주 생활을 편하게 해줄 어떤 선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다. 난민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저 외국이 아닌 내 나라에서 살아가는 안정감으로 그에게 기댈 언덕을 조그맣게 만들어 주고 싶을 뿐이다. 적어도 조국에서 쫓겨나다시피 난민길에 오른 그들이 형 또는 누나처럼 가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주고 싶을 뿐이다.

시간이 너무 흐르면 기회는 많지 않다.

그리고 다음 주에 태풍이 잣아들기만 기도할 뿐이다.

9월 29일

나는 예멘에서 온 이들을 만나기 위해 더운 여름에 한 달 간격으로 2번 제주도를 방문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청년도 있고, 봉사단체를 후원하기도 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수시 연락을 했고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며칠 전 Saddam에게서 연락이 왔다. 10월 1일에 제주도 있는 한국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아니라, 맷고 있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나누고 한국에서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고질적이던 다리 문제를 치료할 수 있게 된 고마움과 기쁨에 대한 표현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수술이 잘 되고 치료와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슬림이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할 즈음인 10월 9일부터 제주도 일정이 잡혔다. 아내에게 제주도 일정 중에 Saddam을 만나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장인어른 칠순 여행 일정이지만 아내는 흔쾌히 허락해줬다.

Saddam은 예멘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떨어진 폭탄때문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예멘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과 치료를 병행했지만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혼자 예멘 내전 지역을 빠져나온 청년이다. 지금도 제주도 세인트 하우스에서 무료로 내준 숙소에 기거하며 서귀포시에서 일하며 얻게 된 수익을 예멘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다. 제주시에서 세인트하우스로 라이드 해주며 나눴던 대화 중에 유독 2가지가 아직도 기억에 깊이 남아있다.

하나는 그 때 당한 부상으로 인해 다리에 고질적 통증이 생겼고 서귀포 직장에서 일할 때 심한 통증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멘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10월 10일 다시 사담을 만난다.

지금 제주 여행 중이다. 성도들은 일하는데 목사는 한갓지게 여행이나 하고 다닌다고 꾸중 들을 지도 모르겠다. 굳이 평계하자면 장인어른 칠순이어서 처가 식구들과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는 것. 여행 중에 Saddam을 만날 계획을 세웠고, 가장 여유 있는 여행 첫날, 마침 숙소도 제주시여서 Saddam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밤 9시가 조금 넘어 사담에게 연락하고 병원을 찾았다. 제주 한국 병원 537호, 이름은 사담, 성은 알싸라비.. 그는 먼 타국 제주의 낯선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누워있었고, 고통을 잘 참아내고 있었다. 지난 번 세인트하우스에서 만난 핫산이라는 친구가 사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보조 침대가 없는 온돌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 모양이다.

날 보자마자 꾸벅 허리를 구부려 인사하는 핫산. 일어나진 못하지만 반갑게 웃으며 친한 브로들이 하는 방식의 인사를 주고받은 사담. 다시 보게 되어 반갑다는 사담과 핫산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10월 2일에 다리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병상에 있던 사담이다. 사담의 수술 때문에 한 팀으로 움직였던 핫산과 또 한 친구(이름이 가물하다)는 함께 직장을 잃었다. 그리고 현재 무직이라 핫산과 또 한 친구가 격일로 병상 옆을 지키고 있었다.

사담의 수술은 생각보다 큰 수술이었다. 오른 쪽 다리 수술 후 드레싱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당시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다. 일차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의사가 근육과 뼈 이상이 발견되어 2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단다. 그 동안에 난민 지위 신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일을 할 거라고 사담은 말한다. 일을 하지 못해 오는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전해졌

다. 용기를 내어 사담에게 병원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생활은 어떻 게 하느냐고 물었다. 크리스티나라는 수녀님께서 자원봉사하시며 그녀의 중재로 그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서 그녀의 사진을 보여준다. 한국인이 아니다. 루마니아에서 오신 분이다.



이야기 하는 내내 그들의 표정은 밝았다. 이 상황이 자신의 삶이니 받아들여야 하고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얼른 나아 다시 일을 하고,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제주도가 너무 좋다고 연신 말한다.

그가 속한 이국 땅 사람들은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니 마느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사담과 그의 친구들은 제주도가, 한국이 좋다고 고백한다.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기에 험난한 인생의 한 과정을 잘 버티고 있는 것일 게다.

언제 2차 수술을 하게 될지 아직 모른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전히 아픈 몸이지만 그에게서 흐르는 밝은 에너지는 내 자신을 반성케 한다.

혹시 모를 염려를 담아 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화장실에 가서, 준비한 것보다 조금 더 지갑에서 꺼내 봉투에 넣었다. 사담만 염두에 두고 찾아간 병실이었지만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핫산과 또 다른 친구 때문이다. 한국은 병문안 할 때 꼭 선물이나 작지만 봉투에 사랑(돈?)을 담아 빨리 낫기를 기원하며 응원하는 전통이 있다고 설명하며 건넸다.

그가 나에게 감사를 표한다. 무안했다.

오랫만에 만난 그들이 여전히 마음에 희망을 품고 매일을 견딜수 있게 해 준 그래서 오늘 만남이 가능하게 해준 그들의 한국 친구들이 더 고맙다고 했다. 병원비를 지원해 준 크리스티나 수녀님, 숙소를 제공해 준 세인트하우스 주인장 미스터 강(강민창 목사님) 그리고 오며가며 예멘 난민들을 응원해준 많은 이들….

난민 지위에 대한 결정이 국가로부터 내려지면 그들은 출도조치해제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꼭 광주에 와달라고 했다. 꼭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헤어졌다.

교회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고민하고 살아야하는지 조금씩 배우는 제주도에서의 작은 만남이었다.

늘감사.

10월 24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사담(Saddam)에게 연락이 왔다. 난민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1년 동안 한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사담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핫산과 무아타샘(Muatasam)도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었다. 사담이 보낸 문자에는 그의 두 친구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수술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친구들이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새롭게 부여된 지위로 그들은 한국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 비록 사담은 2차 수술과 치료, 회복이 남아 있어 아직 제주에 있어야겠지만 말이다.

제주를 떠나 오기 전 나는 사담과 후삼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다. 제주를 떠날 수 있게 되면 꼭 광주에 들러달라고 한 약속이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

떤 직장을 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잠시라도 광주에 와서 함께 이곳을 보여주고 호흡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과 내 앞에 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지내는 것이 체류의 목적이 아니다.

당연히 관광이 목적도 아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가장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예멘에 있는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송금한 돈을 가족들이 찾아 쓰는 일이 쉽지 않지만 현재 예멘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한다.

그들이 광주에 온다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일자리를 연결해줘야 한다.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도시에서 그들은 안정된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가 한 약속이 그저 호기롭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메노나이트 총회 스케치

아래의 내용은 외부에서 총회를 참석하신 분들의 담회를 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원래 하신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장춘(샬롬 공동체) : 미국 남침례에서 안수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교단을 어떻게 소속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교단 형편이 상당히 어지러워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총회가 있어서 동기들과 모임을 하는 중 총회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니깐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다른 주제들이 실제적이고 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면서 회의를 하니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모인 분들이 평신도인데 다들 주관이 뚜렷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논리정연하고 자신의 소신을 뚜렷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깐 여기는 확실히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병욱(꿈이 있는 교회) : 교수님 생각하고 저도 느끼는 것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총회를 하면 회의 업무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교제, 회무처리도 하고, 어린이들은 놀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평소 제가 꿈꾸던 총회거든요. 이번에 제가 꿈꾸던 총회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리더들만 참석해요. 목사,

장로, 총대 이상이 참여하는데, 여기는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것 이 독특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의견을 나누고, 의견이 다를 때 인내하면서 조심하여 발언하며, 소수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청년들이 발언하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이것이 왜 가능한가 생각해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호칭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여기는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서로 협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는 형제님, 자매님 호칭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총회를 하는 것을 보니깐 이렇게 호칭을 ‘형제, 자매’로 하니깐 이런 총회분위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좀 아쉬운 점은 기도를 안 해요. 공동기도문은 있었는데 뜨겁게 같이 모여서 개인 기도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메노나이트가 다이나믹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잖아요?

유장춘 (샬롬 공동체): 제가 아쉬운 점은 세미나가 재밌고 토론 과정이 좋긴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혹은 생각하고 있는 라인을 넘어설 수 있는 통찰이나 선포나 교육이 경험 되지 않았어요. 이 수준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니깐 굉장히 수준 높은 스피커가 있어서 몇 가지라도 중요한 주제를 던져 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이병욱 (꿈이 있는 교회): 가능하면 우리끼리 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이겠지만 메노나이트도 끊임없이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요.

유장춘 (샬롬공동체): 주제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와서 공동체의 진수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요즘 공동체의 대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나눠주면 좋지 않

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회중을 존중하고 회중의 생각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생각이 인상적이었어요. 의사 결정 때에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은 WCC에서 볼 수 있었어요. 빨간 색을 흔드는 사람은 나와서 이야기하게 하고 금방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회부를 해서 전체 의견을 도출하더라구요. 제가 굉장히 놀랬는데 여기서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신선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열려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김복기 (메노나이트 선교사): 세미나는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형제들이 아니라 자매들이 하게 하자는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승준 (함께하는 교회): 분쟁이 있거나 말썽이 생기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수 없고 기회가 없어서 뒷담화가 생기는 것이라. 여기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서 다행이예요.

이병욱 (꿈이 있는 교회): 회의할 때 전통적인 방법은 동의하고 재정하고 사회자가 가부를 묻는데 오늘 총회는 어정쩡하게 넘어가던데 일부러 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방법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된 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좀 그렇더라구요.

김복기: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예요.

이병욱: 한 사람이 1~2회 안에서 발언하고 제한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반복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김복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회의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배우고 있어요.

유장춘: 의사소통을 위한 공동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의사소통을 위한 공동의 약속

- 모든 의견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 잘못된 답이나 생각은 없으므로 각 사람의 의견을 함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달라도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겠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을 도중에 끊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 말할 때 서두르지 않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겠습니다.
- 다른 사람을 대변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임 후 직접 가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방법으로 말하겠습니다.
-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기다리고 발언권을 얻어 말하겠습니다.
- 실제 사실과 개인의 의견을 구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을 유지하겠습니다.
- 설득하기도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설득되기도 하겠습니다.
- 결국은 우리의 소통과 의사결정이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이므로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으로 회의에 참여하겠습니다.
-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의 안내를 존중하겠습니다. <캘거리 제일 메노나 이트교회 규칙 참조>

김복기: 동성애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캐나다 교회의 원칙을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것은 리더들이 공동의 약속을 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한 사람이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 할 때 두 번 이상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약속을 하고 거기에 어긋나면 리마인드를 시켜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의의 운영의 묘를 살리며 기본원칙을 지키려고 해야 해요. 발의, 동의, 재청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하죠.

유장춘: 그런 장치가 있으면 회의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병욱: 신구임원 교체 방법도 좀 이상했어요. 전년도는 전임임원이 하고 내년도는 후임임원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준호: 이번 회의가 총회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며, 신임은 예배 때부터 새롭게 하게 됩니다. 내일 예배 때 구신임원 교체가 있을 거예요.

박상빈 (함께하는 교회): 전체 2박 3일이 총회네요.

김복기: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미국 캐나다 총회는 목회자들을 위한 총회가 또 모여요. 목회자들에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를 모시고 또 들어요. 전체적인 틀은 짜여 있는데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에너지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죠. 총회는 오픈 예배부터 폐회예배까지가 총회이죠.

유장춘: 아직은 작으니깐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규모가 형성이 되고 하면 요즘 세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회의 결의안을 정리해서 총회에서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

으면 좋겠어요.

김복기: 지난번 국정농단할 때 시국선언한 교회가 얼마 안 되요. 우리는 그 때 시국선언을 했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고 그런 것은 시의적 절했죠.

유장춘: 이번 같으면 사법농단이나 남북평화에 대한 선언을 교회가 교단적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하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하면 태극기부대 밖에 생각이 안나요.

김승천 (예수마음교회): 북한 사역은 MCC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맷혀 지는구나 하는 것을 MCC를 통해 지켜 볼 수 있어요.

유장춘: 사회적 이슈가 떠올랐을 때 교회가 지적해 주고, 꼭 떠올라야 하는 주제인데 안 뜨는 주제는 교회가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 하죠.

김성우 (하늘가족교회): 예멘이 떠올랐을 때 제주에 예멘사람들이 있으니 제주에 있는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 저희 하늘 가족 교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연합으로 묶었고 거기서 발표가 나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여 밴드를 만들고 연대하기로 시작했죠.

유장춘: 뉴스앤조이나 오마이뉴스는 기자가 아니라도 글을 올릴 수 있으니깐 메노나이트라는 하나의 교단이 입장을 발표한다면 주목할 것 같아요.

김승천 (예수마음교회): 우리가 집중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후원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드러내지는 않아요. 효

과적으로 하는 것은 미흡한데 잠자코 하고 있어요. 전략적이지 않아서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박상빈 (함께 하는 교회): 농담이지만 느헤미야를 기성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놀랍고요. 그래서 메노나이트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저희에게는 합의 과정이 익숙한 것이었는데 저희는 개교회고 여기는 총회라 합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았어요. 사안에 대한 정교함과 회의 속 에티켓을 보면서 저희도 회의할 때 회의에 대한 규칙을 읽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세부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김복기 형제님이 생각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속한 교단이 없고 기도처에 불과하니깐 저희가 소속이 어디에도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오면 메노나이트의 정신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총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신학자나 폴타임 사역자가 없어서 할 수 있다면 소속되든 안 되든 교회 전통과 연대를 해야 건강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많이 배우고 햇살도 좋아서 누리다 갑니다.

이승준 (함께하는 교회): 가이드 북 보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익한 것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비슷한데 형제들은 이야기하고 자매들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자매들이 그렇게 결정하냐고 하는데. 저희는 운영위원에 자매를 꼭 포함시키고 주 설교자를 세울 때도 자매를 꼭 세웁니다. 투표를 하면 안 나올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자매를 세워요. 대표자들도 형제들이 많고 자매들은 잘 나서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초반에 메노나이트 교제를 같이 공부를 했기에 누가 메노나이트로 가자고 하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메노나이트 참여하신 분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멤버들 자체가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한 교회 출신이긴 하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자’, ‘아니다. 그럴 필요 없

다.’ 등 별의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해 가는 과정에 있다보니 끌려온 거 비슷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느헤미야와 연대를 하고 있고 두 달에 한번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한국교회에서 교단도 문제가 많아서 한국교회의 대안들의 기능들이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연대차원으로 한쪽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약한 부분에 대해 느헤미야의 도움 받고 연대를 통해서 개교회나 신학자들도 건강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박상빈 (함께하는 교회): 너무 커질 때를 대비해서 회의방식을 겹내할 필요가 없어요. 대형화를 추구하지 않으니깐 성, 젠더, 이런 이슈들이 개인의 경험 속에서 나눠지면서 외부 액션으로 안 나와도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어요. 공동체 안에서 토의안건으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토의되고 논의되는 것을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양이 안 갖춰졌지만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성우: 저희 메노나이트 총회가 시작한지 2년 8개월 밖에 안 되었어요. 이제 발걸음을 뛴 것이죠.

김복기: 작년에는 외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고, 그 분들에게 내년에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어요. 우리랑 접촉점이 있었던 분들에게 초청을 했었어요.

문선주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오늘 대화는 아나뱁티스트저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작당을 모의하는 젊은이 모임으로

현재 메노나이트 교회연합 <젊은이 모임>에는 총회에 참석한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청년들이 자유롭게 함께 하고 있다. 멤버십이 없는 청소년이나 청년 또한 함께 할 수 있기에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이 모임이 가진 강점은 메노나이트 교회연합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그렇기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며 매 번 볼 때마다 친분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매 년 안부에서 시작해 안부에서 끝이 난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다. 매 번 변하는 구성원들도, 그리고 나누던 이야기들에도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모이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강원도와 서울, 충청도, 경상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10대부터 30대까지 모여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나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서 비록 인원은 적지만 ‘젊은이’가 아닌 ‘청년’과 ‘청소년’ 모임으로 구체화 시킬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젊은이’라는 단어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우리는 중년 혹은 노년의 모임을 ‘늙은이’ 모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젊은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이로 그룹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타자화하는 단어이다.



배꽃잎 자매
평화누림교회

이런 것 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예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누구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메노나이트 교회연합 총회는 논산 평화누림교회에서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배중열, 배꽃잎 청년이 중심이 되어 청년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총회 주요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해야 했기에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가장 중심으로 두었던 것은 친목이었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대부분분이었다. 친목을 위한 시간과 더불어 그 너머의 대화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메노나이트, 페미니즘 등에 대하여 세미나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총회를 제외하고 따로 시간을 내 모이는 것이 어렵기에, 총회시간 이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둘러 앉아 이야기하며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데에는 다들 같은 목소리였다. 다음 총회가 내 후년에 있기에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5월 즈음에 만나기로 이야기했다. 강원도와 서울, 충청도 경상도 중에는 그나마 중심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채팅방을 개설했다.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더 자주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배중열 청년은 논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불편했다고 한다. 또한,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들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는데, 안건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와서 더 그런 것 같았고, 이 점이 조금 아쉬웠다고 이야기했다. 구성원들이 미리 안건을 숙지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총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청

년과 청소년 모임을 통해 숙소로 돌아가 산책을 하거나 쉼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고 나누었다. 또한 각 교회가 분담하여 설거지를 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배중열 청년의 이야기처럼 메노나이트 교회연합 총회에는 아쉬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더 풍성한 내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은 메노나이트 교단이 청년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원하고 환대한다는 것이다. 메노나이트 교단의 청년과 청소년들은 이제 서로 인사를 끝내고,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 이 단계를 지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모이고, 작당모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단에서 그 작당모의를 더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안하고, 기다려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기존의 메노나이트 교회연합 청소년, 청년들이 더 깊숙히 함께 하고, 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메노나이트 교회연합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모든 단계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2018년에 한국메노나이트 교회연합의 새로운 멤버가 된 두 청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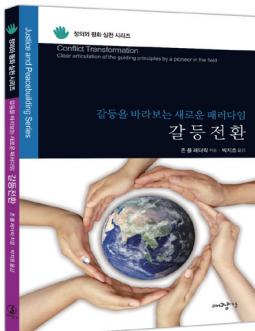
〈예수마음교회_김효성〉 대학교 입학 후 방황하던 차에 같이 살던 기숙사 형의 제안으로 대학교 선교단체(IVF)소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많은 치유를 받고 교회에 한번 출석하기로해서 학교 근처의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 교회에서 좋은 관계와 말씀을 배웠다. 그러다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을 따르기로 했다.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생활하며 예수를 따르고 그 삶을 따라 사는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기로하면서 교회와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전역 후 기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그러다 IVF 중국 기행에서 예수마음교회를 소개 받게 되었다. 그 후 예수마음교회를 다니면

서 세상과 교회에 질문을 던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교회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총회에도 참여하면서 같은 질문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여러 교회들과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1년간 예수마음교회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MCSK에 관해서도 알게되고 그 멤버십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 기회에 MCSK회원이 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고민을 함께하고 평화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 예수를 따르는 삶, 평화를 꿈꾸는 청년들과 많은 교류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번 총회에서 청년들과의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쁘다.

〈평화누림교회_배꽃잎〉 IVEP(International Volunteer Exchange Program)을 통해 메노나이트를 경험하였다. 공동체를 떠올리면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난다. 기쁜 일에는 함께 축하하며 슬픈 일에는 함께 울기도 한다. 이런 것이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했다. 물리적으로 살을 대고 살지 않지만, 우리는 살을 비비며 살고 있다고 느낀다. 비록 서울에서 생활하기에 평화누림교회에 자주 출석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메노나이트 교회연합의 한 청년으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열심히 하고 싶다.

갈등전환

존 폴 레더락 지음 | 강영실 옮김 | 대장간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존 폴 레더락 교수는 갈등을 보다 깊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려 한다. 인간과 세계, 그리고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화를 중시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강영진 / 갈등해결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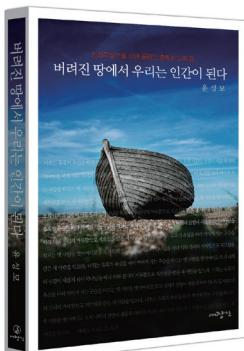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갈등해결연구센터장 · 겸임교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고 당장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일반적인 한국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갈등전환”이라는 문제 설정과 접근 방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김동춘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주의연구소장

버려진 땅에서 우리는 인간이 된다

윤성모 지음 | 대장간



성경묵상으로 길어 올리는 중독치유의 길

건강은 몸의 상태를 극복하려는 영혼의 힘이다

이 책은 중독을 정신장애, 마음의 병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정신분석학, 심리학, 상담학 등에서 구축한 치유 성과들을 성경의 관점에서 통합 적용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볼트만이 “참된 건강은 살고자 하는 힘, 고통을 겪는 힘,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힘이다. 건강은 내 몸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내 몸의 다양한 상태들을 극복하기 위한 영혼의 힘”이라

고 정의했던 것처럼 중독의 치유란 우상숭배에 찌들은 병든 영혼의 상태로 바꾸어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성경이 이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나뱁티스트가 뭐죠?

음 이건 운동이야.

어떤 운동이냐고?

이 운동은 머리나 입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예수가 썼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지.

한번 해 볼래? 살도 빠지고 통장에 잔고도 빠지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끈끈한 편이야. 운동을 해도 같이하지.

역사와 문화와 성별이 다른데도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잘 어울려.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깐깐해. 안 볼 때는 좀 살살해도 될텐데

요즘 말로 좀 빽세게 사는 편이지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운동교리나 사람을 중심으로 풀풀 뭉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있어도 잘 안 싸워

그냥 맞거나 때릴 만큼 때리면 멈추겠지…

뭐 이런 배짱으로 운동하는 것 같아보여

그래서 그런가?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맷집이 좋은 편이지

오백년 넘게 맞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살았는데도

지금도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 말이지.

같이 해볼래?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는 거 좋을 것 같지 않아?

아나뱁티스트 관련 웹사이트 주소

교회 www.sbrookchurch.org(쉘브룩메노나이트한인교회)

www.facebook.com(꿈이 있는교회) ■ 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

단체 www.kac.or.kr(KAC) ■ www.narpi.net(NARPI동북아평화훈련원)

www.kopi.or.kr(한국평화교육훈련원) ■ www.daejanggan.org(도서출판 대장간)

www.wcfgw.nayana.kr(개척자들) ■ www.ReconciliAsian.com(리콘실리아시안)

▶ 후원하실 단체를 안내합니다

개척자들 – 비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68801-04-014046(사)개척자들

– 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93401-04-124532(사)개척자들

ReconciliAsian(디아스포라 화해자들)

– 비소득공제용 : 씨티뱅크 892-01467-259-01 허현

KAC 스탠다드차타드 425-20-403665 한국아타뱁티스트센터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KAF 재정 사용 내역(2018. 6. 1~2018. 12. 27)

이월 461,640

수입 980,160

35,000(남상욱), 60,000(정성한), 35,000(배용하),

700,000(예수촌교회), 150,000(대장간), 160(이자)

지출 610,000

610,000(저널 16호 인쇄/우편)

잔액 831,800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운영에 사용합니다.

재정 사용 내역 중 바로 잡을 것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배용하 형제에게 문의해 주세요.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